

월요광장

좋은 일자리는 우리 내부에 있다



이 상 먼
광주대 교수

이태리 협동조합의 수도라 불리는 볼로냐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주도(州都)이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태리 20개 주(州) 중의 하나로, 2만2000km²의 면적에 4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이 주에는 무려 40만 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과 학생층을 제외하면 결국 평균 5~6명의 구성원이 하나의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에밀리아로마냐의 인구는 이태리 전체 인구의 7%지만 GDP의 9%를 생산한다. 2010년 이곳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로 이태리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 종업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다층 네트워크를 형성, 시장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경제구조를 ‘에밀리안 모델’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현안이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행렬은 여전히 멈추질 않는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눈을 차디찬 외부에만 돌릴 필요가 없다. 이전 눈을 내부 시장에 돌려야 한다. 지역 내부의 틈새시장을 찾아 창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무한히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대본 카운티가 지역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틈새시장을 찾아 창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무한히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대본 카운티가 지역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틈새시장을 찾아 창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무한히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대본 카운티가 지역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틈새시장을 찾아 창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무한히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대본 카운티가 지역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틈새시장을 찾아 창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무한히 있다는 얘기다.

창업하는데 기반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 내에서도 좋은 사업모델이 무진장 많다. 바닷가 횡집이 많은 충남 서천에서는 군청 직원의 제안으로 지역 횡집들이 공동으로 미나리를 계약 재배, 외지에 유통되던 미나리 구입대금만큼의 지역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뒀다.

에밀리아로마냐에는 ‘코프 아드리아티카’라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매출액만 무려 20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조합마트에 진열된 제품의 70% 이상이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된 것들이다. 주민들이 조합마트에서 지출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기업으로 환류하는 구조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영세·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위에 창업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 보니 모두가 창업을 무서워한다. 이 때문에,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위험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생태계가 가장 잘 조성된 나라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은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인으로서 직장을 잡는 것 외에는 모두가 창업을 선호한다. 돈을

벌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지 남의 돈을 벌어서 주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우수한 창업지원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창업육성책에 힘입어 좋은 창업지원 제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창업지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요, 지역 경제의 흐름을 가장 파악할 수 있는 곳도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경제구조가 취약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창업 진화책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마을회사’라는 책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밤 제1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다.”로 바꾸자면서 “소기업이 들쭉날쭉 피어나고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올 것이며, 그것은 지역과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강원도 원주시, 전북 완주·진안군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창업이 활성화하려면 먼저, ‘창업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며, 일자리 창출의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광주·전남에서도 ‘에밀리안 모델’처럼 우리만의 고유한 경제 선순환 모델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공감하기



구 진 미
광주지검 검사

검사들에게는 강력·성폭력·교통·환경·의약 등 각자 맡은 전담분야가 있다. 올해 나에게 주어진 전담분야 중 하나가 ‘피해자지원’이다.

검찰청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유족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종전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이전비를 지원하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등을 겪은

피해자를 위한 예술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와의 연계로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생계비·치료비·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를 등을 지원한다.

필자는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로서 유족 구조금 신청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조금 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데 적정한 사안인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가감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해 강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임시거처를 지원한 사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현장을 정리할 방법이 없던 피해자에게 특수유역입체를 통한 현장정소 및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사례, 가해자를 알 수 없

는 문자폭행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 범죄피해자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 사례 등 다양한 지원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 검사실에서 무수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내가 조사한 사실관계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것일지, 결론이 적정인지, 어떻게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인지 등을 주로 고민해 왔었다. 그러나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그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까지도 이전보다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

얼마 전 어음금 편취 사기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을 대질 조사한 적이 있다. 오չ 내내 이어진 장시간의 조사가 끝나자 참고인이 내게 다가와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피해

자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충분한 이야기를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비록 참고인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동안 가졌던 억울한 마음과 검찰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감사사를 내서는 관공객은 11만431명.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엔 4만662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관공 소득 역시 지난해 24억8300만 원에서 올해는 12억 5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세월호 사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건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검찰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기고

‘백수’로 사는 월요일 풍경



고 성 혁
시인

옛것과 접시를 먹으면서 지인이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말해 크게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은 바쁘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더니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서운하다며 밥 먹자고 해 저녁이면 술자리가 잦아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백수는 백수일 뿐이다. 백수(白手)는 말 그대로 ‘빈손’이지 ‘백수(百職)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다. 터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반박지만 입꼬 찡그러뜨리고 있는 광경을 낚설어 하거나 새벽같이 깨 세수까지 하고서야 출근이 필요 없는 퇴직자라는 걸 깨닫는 안타까운 존재일 뿐이다.

백수가 되고나니 신난 사람은 아내다. 부러워기 안성맞춤인 인간이 하나 갑자기 툭 떨어졌 것이다. 일요일이면 늘 같이

부침 수 있도록 파와 행 등을 갈아 섞는 다. 그런 다음 내가 씻어놓은 시금치, 깻잎, 콩나물, 고사리, 얼갈이배추 등을 끓는 물속에 넣고 데치기 시작한다. 야채 씻기를 할겸거리며 재촉하던 여사님께서 이내 그 일을 끝낸 내게 계란말이 전을 부치도록 요구한다. 계란말이는 오래전부터 내 몫이었다. 이거 대충하면 금방 피가 난다. 첫째, 약한 불로 맞춰놓고 끈기를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센 불에는 골잘 타지기 때문이다. 둘째, 전의 건더기를 굵어 훑어 내리면서 꼬부라 겹치고 눌러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겹쳐진 부분의 내용물이 설익는다. 따라서 적은 양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늦은 점심 후에 시작하면 대개 저녁이 돼서야 끝나고 몸은 파김치가 된다. 목욕이라도 하고나면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싶어진다. 피곤하기는 여사님도 마찬가지. 그동안 각종 나물을 된장에 무치거나 기름에 볶고, 탕과 국을 끓인 다음 그 것들을 육조에 찬 물을 받아 식혔으니 노고가 적지 않은 터라 타박할 수도 없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공동의 작업이니 ‘똥 눈 뵈이 성내는 척’ 아내에게만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백수의 이름으로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그 거룩한 이

를 때문에 차마 뿌리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

자, 월요일 오전 백수 료의 일정을 간추려보자. 06 : 30 아내를 깨운다. 07 : 30 아내의 출근을 배웅한다. 08 : 00 아이들의 음식을 당일 택배로 부치기 위해 반바지를 입은 채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 차에 오른다. 출근시간이라 교통체증이 심하다. 우체국 앞에서 주차경쟁을 벌인다. 무거운 담고 돈을 지급한다. 10 : 00 아침 설거지를 시작한다. 10 : 30 어제 하지 않은 정소를 시작한다. 먼저 물수건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닦아 내린다. 이어 청소기로 구석구석의 먼지를 흡입한다. 마지막 물걸레로 온 방바닥을 닦는다. 12 : 00 터워 죽을 지경이어서 찬물로 샤워한다. 12 : 30 국에 말아 점심을 간단히 때운다. 대충 이렇다.

서울에서 편하게 넘적넘적 받아먹는 놀음이 내 자식이니만큼 형식적으로나마 자진해서 매주 하는 모양이 됐다. 그래, 많이 움직이면 오래 산다더라. 여사님께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아닌가. 더운 날씨에 열 내지 말자. 나만 손해다. 백수가 좋다며 며, ‘화려한 백수’라고? 또 그것도 줄여 ‘화백’이라고 하는 분들, 정말 한 번 해보시고 말씀들 하시길, 허허.

무 等 鼓

#2002년 6월 14일 인천 문화경기장. 한·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1-0으로 격파, 조 1위(2승1무)에 오르며 16강에 진출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박지성. 후반 25분, 이영표가 왼쪽 진영에서 길게 넘겨준 공을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가슴으로 트래킹한 뒤 수비를 제치고 왼발로 차넣었다. 박지성은 결승골을 넣은 뒤 골장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포옹

#2010년 3월 21일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 경기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라이벌인 리버풀과의 2009~201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에서 박지성은 1-1로 균형을 이루던 후반 34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슛으로 역전 골을 성공시켰다. 골을 터트린 박지성은 맨유의 엠블럼이 있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포효 하듯 그라운드를 달렸다.

지난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박지성의 은퇴를 기리는 2014년 프로

社 說

광주시-의회 조직개편 갈등 더는 안 된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시의회가 수평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출석으로 만들어졌다며 개편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수정안을 28일 이전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먼저 시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고 하나로 통합하도록 할 것과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실을 독립기구로 두도록 요청했다. 또 안전정책관실과 청년인재육성고에 대해서도 재편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회 측도 수정안을 검토한 뒤 이달 내에 원본인드 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기인사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의회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의회 역시 집행부 ‘갈등이기를’ 내세워 억지 내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인사가 지연될 경우 승진 대상자들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물론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된 데는 집행부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시가 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지를 설명했지 초선의원들을 의면했다는 건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고위관료마저 무시한 채 규탄성명을 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기능과 소통 부재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의회도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대응한 것처럼 ‘근기잡기’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여파로 어려운 진도군민에 용기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진도 지역민의 헌신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였다. 군청 직원들은 철야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학생들 또한 희생된 또래들의 넋을 달래는 데 마음을 모았다. 생업을 뒤로한 채 팽목항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도 부지기수였다. 유독 정(情)이 많은 남도인들이 보여준 뿌듯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00일을 넘기면서 진도지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장은 황폐화됐고 농수특산물들의 판매량은 급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지만 방문객은 손꼽을 정도여서 상가와 식당 등엔 파리가만 날리고 있다.

관광객 수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4~6월 윤림산방이나 남도국악원 등 주요 관광지에는 찾은 관광객은 11만431명.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엔 4만662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관광 소득 역시 지난해 24억8300만 원에서 올해는 12억 5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세월호 사태

로 진도역시 큰 상처를 입은 셈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충원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 경제단체에 추천선물로 진도산 농수특산물 애용을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로 지역경제가 마비되다시피한 진도 돕기운동이 각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안산시 등도 사고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진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농수특산물 구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지난 19~20일에는 안산시청에서 ‘진도 명품 직거래 장터’가 열리기도 했다.

이제 그동안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헌신해 온 진도 군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돕는 것은 향약(鄕約)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인 환난상휼(患難相助)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의 미덕을 베푸는 일이 아니겠는가.

無 等 鼓

#2002년 6월 14일 인천 문화경기장. 한·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1-0으로 격파, 조 1위(2승1무)에 오르며 16강에 진출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박지성. 후반 25분, 이영표가 왼쪽 진영에서 길게 넘겨준 공을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가슴으로 트래킹한 뒤 수비를 제치고 왼발로 차넣었다. 박지성은 결승골을 넣은 뒤 골장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포옹

#2010년 3월 21일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 경기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라이벌인 리버풀과의 2009~201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에서 박지성은 1-1로 균형을 이루던 후반 34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슛으로 역전 골을 성공시켰다. 골을 터트린 박지성은 맨유의 엠블럼이 있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포효 하듯 그라운드를 달렸다.

지난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박지성의 은퇴를 기리는 2014년 프로

축구 K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운집한 5만여 명의 관중들은 박지성, 이영표 등 스타들과 K리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도 ‘캡틴’ 박지성은 득점 후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고, ‘초롱이’ 이영표도 히딩크의 어퍼컷 행거를 흉내냈다. 득점 후 이어진 갖가지 세리머니도 팬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다.

고흥 출신인 그는 단신에 평발이었지만 남다른 체력과 스피드, 수비력 등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본 히딩크 감독 덕분에

에 월드컵 후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인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심장이 두 개인양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명승부를 펼친 그의 모습은 경계 침체로 침겨온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추구화를 벗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박지성을 우리는 응원한다. 그의 활약상이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듯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에 밀알 역할을 하는 ‘영원한 캡틴’의 모습을 기대한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그 램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